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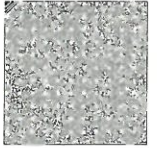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68호 2021년 11월 28일(다해)

대림 제1주일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 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예레 33,14-16

화답송 | 시편 25(24),4-5 가. 8-9.10과 14(◎ 1)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

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 1테살 3,12-4,2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이광휘 베드로 신부 | 해외선교(프랑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주사목 소임 중에 해외 선교 발령을 받아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만나서 도움을 드리다가 이제는 반대로 이주민이 되어 프랑스 본당에서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이주민과 함께 지내며 이주민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합니다. 프랑스는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 4년의 연수 동안 프랑스 교회의 경험이 있었기에 생활의 적응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주사목 그리고 프랑스 연수는 지금의 해외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는데 커다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대림 시기의 시작이고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새 해의 첫날입니다. 교회는 한 해의 시작을 대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례력으로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4주간 뒤에 기념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래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영성적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1테살 3.1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처럼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예고하는 표징들을 관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선사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손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쉼의 때인 대림 시기에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오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인간인 우리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어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림의 때에 우리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느끼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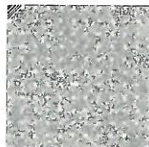
두물머리. 양평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

초라한 십자가 앞에 선 수녀님의 뒷모습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은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께로 인도하소서. 아멘

김연희 세라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장명숙 안젤라메리치
유튜브 크리에이터 밀라논나

성호경, 천주교만의 유일한 제스처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되어 어느 신부님께 들은 내용 중 하나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가끔 식당 같은 곳에서 보면 신자들이 성호를 당당하게 긋지 않고 소극적으로 손목 위에 긋거나 작게 바쳐서 간신히 신자임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천주교 신자임을 당당히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성호 또한 당당히 긋겠다고요. 성호! 천주교만의 유일한 제스처를 저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의 그 거룩한 느낌!

그런 제 결심을 충실히 지켜왔지만, 얼마 전 잠시 성호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일흔 가까운 나이에 주변 젊은이들의 권유로 유튜브라는 가장 첨단 플랫폼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생긴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저의 일상, 특히 아침과 저녁 루틴을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아무리 늙은이라도 잠옷 입고 눈뜨자마자 성호경부터 긋는 나만의 내밀한 순간을 어찌 만천하에 공개하지.’하는 염려였습니다. 물론 저녁 루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옷 입고 십자고상 앞에서 성호 긋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니까요. 젊은 제작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혹시 종교 색채가 강하다고 조회수 안 올라가고, 구독자 늘지 않아도 내게 뭐라 하지 마세요. 성호경을 바치지 않는 아침·저녁 루틴은 제게 상상이 안 됩니다.” 제작진들의 대답은 “염려 마세요.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결국, 아침 루틴 조회수가 190만 이상, 저녁 루틴의 조회수는 240만 이상, 좋다는 댓글이 도합 9000개 이상을 기록하고, 냉담을 풀었다는 댓글과 묵주기도를 다시 시작했다는 댓글 등이 달리는 것을 보며 뭘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본 출판사의 제안으로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천주교 신자인 제가 생각하는 신앙관을 신졌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가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처음 출판사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나이에 유튜브 촬영도 버거운데 책을 써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노트북과 씨름하며 매달린 분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제가 이 나이에 호의호식하자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닌 줄 아시잖아요. (유튜브의 제 모든 수익은 보육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쓰는 이유도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보육원의 보호종료 새내기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인세 전액을 기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끝까지 책을 쓸 수 있게끔 건강과 끈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1년여에 걸쳐 담담히 제 삶의 역사를 쓸 수 있게끔 좋으신 하느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제 글을 읽고 가슴이 따뜻해졌다는 댓글을 올려주십니다. 댓글을 읽을 때마다 다시 성호를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를 이끄는
성경구절



정은숙 수산나
수원교구 용호성당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아버지께서 퇴직하시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하십니다. 혼인성사를 한 기혼 신앙인도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섭니다. 가령, 평신도의 삶을 생각해볼까요? 평신도는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세속에서의 자기 삶 안에서 진행합니다. 험난한 사회 안에서 가정을 꾸리지만 성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이 번잡한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반면, 교회법은 수도자의 삶이 평신도나 성직자의 삶과는 본성상 다르다고 설명합니다(교회법 588조). 말하자면, 수도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수도자들이 하느님을 찾고 증언하는 방식은 수도자를 규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수도자들의 그러한 삶의 양식을 ‘축성 생활(Vita Consecrata)’이라고 합니다. 축성 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도자입니다. 축성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멋 들어진 수도복을 입고 수도원에서 산다 하더라도 수도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축성 생활이란 복음 삼덕에 따라 살겠다고 공적으로 약속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어서 축성 생활의 핵심인 복음 삼덕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인데, 가난, 정결, 순명이 그것입니다. 수도자들은 이 세 가지 가치에 따라 한평생을 바쳐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약속을 마음속으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인한 방식에 따라 공적으로 맺습니다. 따라서 복음 삼덕의 세 가치 중 하나라도 공적으로 지키지 않고 산다면, 수도자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수도자로 사는 의미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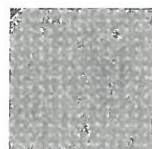
(사진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자꾸 ‘공적’으로 약속한다고 하니깐 그게 무슨 뜻인가 싶으실 텐데,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복음 삼덕을 지키는 공적인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정결’의 가르침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결’은 세상이 주는 기쁨 없이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결이 없다면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에 젖어 들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도자들은 육적인 차원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선택하여 ‘정결’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독신’을 선택합니다. 물론, 정결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결의 가치를 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독신은 정결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도회들은 수도원 입회자를 모집할 때, 지원 조건으로 미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버님께서 수도원에 입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도원 문턱이 높다는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의 입회 장벽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버님을 다른 부르심을 통해 부르



한국에 진출한 남녀수도회 목록



고 계신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미 혼인성사도 받으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다면 하느님께서 평신도의 삶으로 당신을 찾고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성직자나 수도자의 부르심, 평신도의 부르심에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부르심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3회입니다. 제3회는 교회법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벽)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은 제3회들이라고 일컫거나 다른 적당한 이름으로 불린다.”(교회법 303조) 제3회 회원들은 수도자들처럼 가난, 정결, 순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서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결을 독신의 형태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결혼 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속에서 살아가지만, 수도회의 지도에 따라 수도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제3회에 참여하는 것은 평신도가 복음 삼덕을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미니칸 평신도회’, ‘재속 가르멜회’, ‘재속 프란치스코회’ 등이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면 우상숭배인가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비롯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는 명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흠숭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그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우상숭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로 표현되는 거짓 신에게 그 신이 그 사물



2013년, 직지사를 방문하신 김희중 대주교님 모습 (사진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안에 내재한다고 믿고 하느님께 드릴 예배를 바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가톨릭대사전, 우상숭배 항목 참조). 즉, 우상숭배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타 종교 성상 문제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성상 공경 논쟁에서도 적용되었던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고상, 천사상 등 성상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비판 앞에서 우리 교회는 당당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상에 무슨 미신적 신뢰를 두어서가 아니다. 단지, 성상이 상징하는 대상에게 존경을 뜻을 표시할 뿐이다.”라고 말이죠(트리엔트 공의회).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있고, 그 성상이 하느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한 성상에 표하는 존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 종교 성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리 교회의 원칙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성상 안에 신적 존재가 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다면 외적인 존중의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사는 타 종교의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과 해당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차원에서 인사한다면, 종교 간 대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에 스스로 얼마나 당당 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가구야 공주 이야기'

천국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억은?

2013년 감독_다카하타 이사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설화(다케토리 모노가타리)를 아름답고 정감 넘치는 동양적 선과 채색, 일본 풍 수채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가구야 공주 이야기>에서 가구야를 달(천국)로 다시 데려가는 천사는 그곳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잊게 해, 슬픈 일도 더러움도 없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야 공주는 영원한 삶이 있고, 행복만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천상(天)의 아이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본 그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더러움 같은 건 없어,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두 생기가 넘쳐!”

손바닥만 한 크기로 죽순에서 태어나서는 순식간에 ‘대나무 숲’처럼 쑥쑥 자라 아리따운 소녀가 된 그녀라고 행복한 나날만 계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산골에서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너그러운 사랑, 오누이처럼 지낸 스테마루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던 즐거움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보물로 부자가 된 할아버지가 그녀를 공주처럼 키워 귀공자와 결혼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로 이사하면서 끝납니다.

귀공자들은 물론 왕까지 탐내는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좌절과 속박,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자연과 고향의 친구들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뒷산의 나뭇잎이 새순을 감추고 봄을 기다리며 견디듯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지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욕심으로 그녀에게 수치심과 두려움, 죄의식만 심어줍니다. 그녀를 돌아갈 수 없게 만들니

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소원을 달(천상)에 비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인지 깨닫습니다. 먼 옛날 이 땅에서 달에 간 사람들이 기억을 모두 잃어버려 기쁨도 슬픔도 없건만 “돌아오라, 돌아오렴, 아득한 시간이며, 돌아와서 마음을 떠올려다오. 새, 벌레, 짐승, 풀, 나무 꽃, 사람의 정을 키우고 키워서 기다린다고 하면 지금 돌아가리라.”라고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마음을 알게 됩니다.



때론 슬프고 괴롭겠지만 새와 짐승처럼 그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스테마루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먼 옛날 이 땅에서 온 사람들 역시 기억을 잃었지만, 그 시간만은 잊지 못해 언제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구야는 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미 달(천상)에 온 사람들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니깐요. 기억을 지우고 달로 돌아가는 먼 하늘에서 가구야가 고개를 돌려 멀어져 가는 지구를 보면서 흘리는 한줄기 눈물이 그래서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설화는 인간의 삶을 투영합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야말로 천국에서도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신앙의 해’를 기점으로 우리 교구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복음화의 여정이 순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가 중단되거나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 신앙 교육과 단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과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자신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당과 교구의 살림을 걱정하며 성심껏 협조해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명동밥집’과 백신 나눔 등을 통해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2티모 4,2 참조)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에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다른 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노력합시다. 성경 말씀과 기도, 교회 가르침과 미사 그리고 사랑 실천을 통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힘을 모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공동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¹⁾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선포를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복

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 사랑 실천을 통해 주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박해 시대의 우리 신앙 선조들은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를 받을 기회가 적었지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열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박해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례하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통해 복음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 있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형제들”²⁾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넘어선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다고 하신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황님의 뜻에 일치하여 “공동의 집”³⁾인 지구에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평화를 나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통해 생태적 회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태적 회개는 오늘날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⁴⁾ 교회는 모든 사목 활동을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창조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언어·생

1) 이 말씀은 조선대목구 초대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의 사목표어이기도 합니다.

2)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1항.

3)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항.

4)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참조.

각·행동·정보 등의 의식과 감성의 쓰레기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근거리 농산물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서, 무절제한 소비주의 생활양식에서도 탈피해야겠습니다.⁵⁾ 아울러 일상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3)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마르 3,35 참조).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완성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행동과 삶의 기준인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식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음을 열고 논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여정에 온 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하십니다.⁶⁾

교회의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결합을 드러내고, 또한 사랑이신 하느님과 교회의 일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열린 마음과 태도의 표징도 됩니다. 순례하며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와 봉사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제 여러분, 교구장 주교인 저와 일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노력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제들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안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미사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남녀 축성 생활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태도가 짙어지며, 외적 활동에 치중하는 세상에 살

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더욱 철저히 자기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와 '청빈·정결·순명'의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임을 통한 협력, 특히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자들과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자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요한 1,10-11 참조) 세상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동행해주시는 사실을 굳게 믿도록 합시다. 이 믿음의 힘으로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본당과 지역,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 주십시오.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의 작은 신앙의 실천이 복음화의 여정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2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두 사제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 복음화를 위한 사목적 열정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올 한 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다집니다. 복음화되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복음화하는 여정을 살아갑시다. 이러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노력은 2031년에 맞이하게 될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 정순택

5) 202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특별 사목 교서 '올부짓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에 따른 '실천 지침', 참조.

6)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 2021년 5월 20일 공문(Prot. N. 210114).

오늘(11월 28일)은 '대림 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다해'를 따르게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창일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96차 미사 11월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웅진 본당, 해주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꽃칠화'전: 1전시실
전시일정: 11월24일(수)~12월6일(월)
손은영 개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12월1일(수)~12월6일(월)
유임봉 새김전각전: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1일(수)~12월13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리타스 창업준비센터 입주업체 수시 모집

대상: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 문의: 02)923-4726
주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위치: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3, 1층
면적: 83.62㎡(25.3평), 최대 7개 업체 입주 가능
기간: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해 6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2년) / 기타: 보증금과 관리비 없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진행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이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청년 Hello 기도 2021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일피정 때, 곳: 12월7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	--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신축, 리모델링) 정규 등록 신청 안내

등록신청기간: 11월 15일~12월 10일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이중안 신부(일본 선교 후 귀국)
때: 12월2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인준단체 알림

모임

노들담교육관 1일 피정 / 문의: 010-3590-6319

때, 곳: 12월4일(화)~11월15일(화), 서울 노들담교육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피정 및 미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1) 성모신심피정-강의 미사
때, 곳: 11월29일(월)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2) 첫토요일 신심미사-고해성사 미사
때, 곳: 12월4일(토) 오전 10시~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가정선교회 12월 행사

성가정영성 1일 피정	12월1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식사 준비 문의: 010-2367-2297, 02)777-1773 대표
첫토 성모 신심미사	12월4일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철호 신부 /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12월11일~13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2년 1월2일
눈꽃산행 피정	1월8일~10일, 1월21일~23일

음악치유플링 및 음악심리상담사 과정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플링	12월20일~2022년 1월3일 매주(월) 13시~16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12월22일~2022년 1월5일 매주(수) 14시~17시	회비: 15만원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12월4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명동) 205-2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3일~6일·12월10일~13일·2022년 1월7일~10일·1월14일~17일, 성 도미니코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12월16일~19일, 2022년 1월6일~9일, 1월20일~23일, 2월10일~13일, 2월24일~27일(각 3박4일)
곳: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대림 피정	12월11일~12일	사계절 피정	12월18일
예수마음기도 4박5일	12월26일~30일		
예수마음기도 8박9일	12월26일~2022년 1월3일		
이나시오영신수련 8박9일	12월26일~2022년 1월3일		
내적여정애니메이션(심화)	12월4일~5일		
생명력살리기 워크샵	12월10일~12일		
분노다루기	12월17일~19일		

교육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페이지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1단계 개강

때: 2022년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하반기)

12월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 / 강사: 박동호 신부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접수) / 문의: 02)3147-2402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 문의: 010-4598-6912
 때: 2022년 1월~12월(월) 16시~18시 / 회비: 3개월 10만원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Zoom도 가능
 지도: 프란치스코회(주최) 김성태 신부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세미나 개최

주제: 1인 가구 시대-교회의 사목적 대응과 전망
 때, 곳: 12월2일(목) 14시, 청담동성당
 진행: 대면 및 비대면(청담동성당 유튜브)
 문의: 010-2315-9916 오지섭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폼 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2022년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점점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킹업·목공·보컬·영상·사진·댄스·영어대화 등)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성인, 과학·영어 학습 지도 가능하신 분 /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 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연구과제명: 청소년기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뇌영상 연구 /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및 성인(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내용: 뇌 구조 및 기능 MRI 촬영, 자기보고설문검사(총 2시간30분 소요) / 실시기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연구책임자: 전지원 교수)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여부 안내
 신경인지검사결과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비 지급
 문의: 010-7173-7589, 02)2258-7586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내용: 구원역사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알아가기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문의: 010-9620-4820, 02)774-0448 서울마리아학교

대면반	2022년 1월4일~6월28일 매주(화) 14시~16시(6개월), 가톨릭회관 205호실 / 회비: 16만원	
온라인반	낮반 1월5일~7월29일 매주(수) 14시~16시 저녁반 1월4일부터 매주(화) 20시~22시	Zoom 실시간 수업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모집

재속맨발가르멜회 예수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 모집

때: 매월 첫번째(일) / 대상: 만55세 이하 세례 3년 견진자
 문의: 010-9017-6071, 010-3882-7077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2월1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1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공품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3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자 차장)
 때, 곳: 12월1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수난과 사랑' 묵상기도를 원하는 신자
 때, 곳: 12월2일 19시~2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1월28일·12월26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인나

집단정신 분석상담

때, 곳: 2022년 1월8일~3월12일 매주(토) 15시~16시30분(총10회), 성북구 아리랑로 62 / 내용: 대인관계 훈련
 인원: 성인 남녀(10명 내외, 선착순 접수)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임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	12월11일~2022년 2월5일 매주(토) 14시~17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 강박행동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 0명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http://songsin.catholic.ac.kr>)

도곡어린이집 특수교사 모집 / 문의: 02)572-9110

강남구 국공립 도곡어린이집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실 특수교사를 모집합니다 / 특수교사 자격증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이력서 이메일(dogok9110@hanmail.net) 접수

풍납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482-8151

대상: 세례받은 신자(방화 및 가스안전 면허 소지자 우대)
 주 40시간 교대 근무 / 업무: 방호, 미화, 시설관리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직 사본 / 서류 전형 및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시까지 우편(우 05531,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19길 21 풍납동성당 사무실) 및 방문 접수

반포1동성당 사제관 세탁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초보자 환영, 출퇴근 용이한 지역 및 동종업무 경험자 우대) / 근무: 주3일 근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직 사본(해당자),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해당자)
 채용시까지 방문 및 우편(우 06543, 서울시 서초구 주홍 1길 6번지 반포1동성당 사무실) 접수 / 문의: 02)517-6242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모모임	때	곳	문의
성공품반외방선교회	12월5일(일) 9시30분~13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모 승천 수도회	수시	본원(광주광역시)	010-3771-509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12월5일(일) 14시~18시	Zoom	010-4096-5973
투스핑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	12월5일(일) 14시	본원(돈암동)	010-8191-0377(www.benedict.or.kr)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읽는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대림 묵상 노트

대림 시기를 희망으로 채우는
27일간의 특별한 묵상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6,000원

다가올 주님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묵상 노트입니다. 특히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필사하며, 제시된 다양한 실천 사항 등을 통하여 대림 시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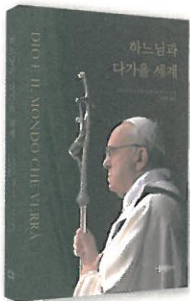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별이 빛난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동반하는 묵상집

|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 13,000원

그 옛날 동방박사들이 빛나는 별을 따라 길을 떠났듯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른 별은 이제 주님을 향한 여정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대림과 성탄 시기를 동반하는 이 특별한 묵상집과 함께 은총이 가득한 영적 순례를 시작해 보세요!



신간 도서

하느님과 다가올 세계

혼자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도메니코 아가소 지음 | 14,000원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불안을 가지고 던지는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주제를 다루며 그 답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희망의 시기로 변화시킬 방법을 알려 주는 교황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신간 도서

하느님의 현존 연습(개정)

가르멜회의 평범한 수사가
알려 주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법

| 콘라드 메스테르 역음 | 15,000원

부엌일, 신발 수선, 포도주 배달 등 온갖 허드렛일로 평생을 보내면서도 하느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준 맨발의 가르멜회 수사 부활의 로랑 형제. 로랑 형제를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누리며 그분과 가까워지는 비결을 찾아 보세요!



신간 도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개정)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

| 조앤 치티스터 지음 | 20,000원

살면서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성경의 코헬렛서 말씀(3:1-18)에 비추어 영적 메시지를 건넵니다. 세계적인 영성가로 손꼽히는 조앤 수녀의 목소리를 통해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신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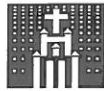
시편과 아가(개정)

주님을 향한
찬미와 사랑을 노래하다

| 최민순 옮김 | 18,000원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시인으로 꼽히는故 최민순 신부의 풍부한 어휘로 시문학의 맛을 더한 번역본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들까지도, 고유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문체 속에서 읽는 맛을 더해 줍니다.

제2205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회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2022년도 달력 배부

일시 : 11월 27일(토) 저녁(주일)미사~

11월 28일(일) 저녁 미사까지

장소 : 매 미사 후 교육관 1층 로비에서 배부
 방법 : 세대별 1부씩 / 구역, 반, 이름 기입 후 수령
 (주일에 수령 못하신 분들은 성당사무실에서
 구역, 반, 이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2구역, 4구역, 8구역, 9구역, 11구역은 반장님께서
 달력을 배부해드립니다.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6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올해 집중판공성사 때는 바코드카드와
 성사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바코드카드와 성사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날 미사 전 성사를 보실 때는
 성사표만 있어도 됩니다.)
 * 성사표는 각 구역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연남기타구역·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12월 5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 군입대 자녀 성탄선물은 12월 5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11월 위령성월 기간에 부여된 전대사

11월 한 달 내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해성사 / 미사참례 및 영성체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주님의 기도 / 성모송 각 한 번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전례단 남성단원 모집

전례단에서 매일미사 독서와 해설을 담당할
 남성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말씀 선포와 미사
 해설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실
 많은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문의 : 전례단장 (010-8230-1085)

◎ 오라떼(교중미사성가대) 성가 단원 모집

성가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할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영세 교우 및 예비신자

연습시간 : 금요일 오후 8시~10시

일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미사 전까지

미사 봉헌 : 오전 11시 미사

문의 : 단장 (010-6807-2704)

◎ 예비신자는 11월 28일(주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갱신 안내

- 지난 201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5년이 경과되어 금년(2021년)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본당에 교적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들은, 올해 안으로 책정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1. 21)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50	864	1,286	45.2%	42.0%	40.2	38.7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1월 15일~21일)

누 계 926,739,361 원

◎ 감사헌금 (11월 15일~21일)

박명숙사만원 송미섭일십만원

김은순삼만원 함영동일만원

이태호일백만원

◎ 우리들의 정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무금 11,325,000 원

주일헌금 4,151,000 원

리모델링 2차헌금 1,830,000 원